

한국사회에서 소통과 인정의 ‘공간’은 어디인가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공저. 2011.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백일순*

여기, 오늘의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가 탄 버스의 옆자리에 앉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을 보게 될 때면, 조만간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진부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글 작업을 하고 있는 카페 옆자리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있다.)

굳이 공식적인 통계를 들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존재는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이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이제까지 민족 정체성의 동일성을 주장해오던 한국사회가 외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통해 지속적인 차이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 문제를 단순하게 경제적 목표를 위한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가 혹은 우리가 놓치게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thinki01@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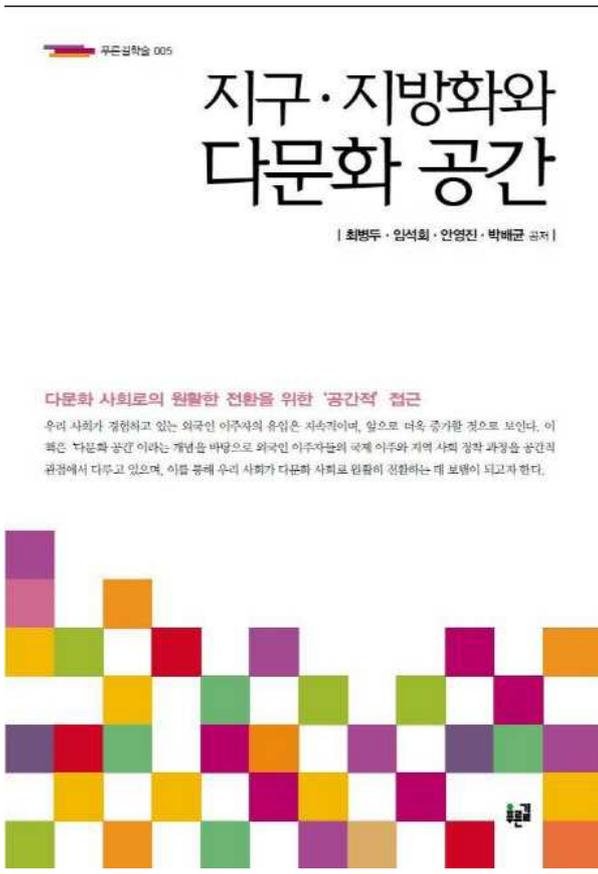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행을 선택한 그들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아로 새겨진 이주자들의 ‘공간’은 다시 한국이라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둔 것은 그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이주자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서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이론 및 철학에서 공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공간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데 기존의 이론들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모여 집필한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2011, 최병두 외 3인 공저, 푸른길)이라는 책은 다문화 사회와 공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분석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후기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구, 지방화의 지역 불균등 발전 문제에 관해 정치, 사회 지리적인 관점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들의 결과물이기에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해

이 책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로서 ‘다문화 공간’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정책이나 미디어에서 무수히 반복하여 친숙한 용어가 되었지만, 다문화 공간의 의미는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그러므로 자기준거적인 형태의 인종주의로서 규범적 ‘다문화주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올바른 이주자 정책과 제도



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가 아닌 ‘다문화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문화 공간’에 주목해야 하는가. ‘다문화 공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책에서 발췌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공간’은 무엇인가.

‘다문화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현상들을 공간적 차원

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된 주제들을 새롭게 드러내고 기존의 논의들을 재서술함으로써 더욱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24쪽).

예를 들어, 이주자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공간은 떠난 공간도 아니고 새롭게 정착한 지역에서의 공간도 아닌 이른바 경계적 간 공간(사잇공간) 또는 제3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다문화 공간은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힘의 장이 된다(25쪽). 즉,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위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문화공간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지구, 지방적으로 다규모적인 장소 만들기를 통한 실천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유지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29쪽).

둘째, ‘다문화 공간’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작동되는가.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 다문화적 실천이 일상에 펼쳐지는 모습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독특한 ‘지리적 선택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74쪽).

특히, 이 책에서는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통해 ‘다문화 공간’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즉,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힘들의 결과로 특정 ‘장소’에 뿌리내린 이주자들은 배제와 포섭의 과정 속에서 ‘영역’화되고 ‘네트워크’로 강화되는 것이다(93쪽).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4가지 관점은 ‘지리학’에서 오랜 시간 다루어 온 개념들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들을 ‘지리학’이 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다문화 공간’은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

다문화공간은 구조적으로 자본 축적을 위한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 공간으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공간적 규범과 윤리가 함의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국가 주도적, 정책적, 순응적인 ‘피동적’ 다문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시민 주도적, 실천적, 비판적인 ‘능동적’ 다문화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3쪽).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 공간은 인정의 정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공간(Spaces of recognition)’으로 간주된다. 즉, 인정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과 정체성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47쪽).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이나 행위 주체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구축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 행위자들이

공적 공간(public space)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아가 상호 주관적 관계를 통한 개인, 집단적 정체성의 상호 인정의 끊임없는 실천적 투쟁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48쪽).

2. 이주 연구의 새로운 관점

이주자들을 조사하는 연구자들 이외에도 정책입안자나 일반인들이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이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문화 공간’이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는 이주현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과 연관되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무시하고 지나가버리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줄이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들을 극복하는데 이 책이 유용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이주자들을 하나의 단일집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주 연구에서 ‘우리’ 이외에 ‘타자’를 분류하면서 ‘타자’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이 책에서 고려하는 이주자들 간의 ‘차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주자들의 이동과 정착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질의 존재 조건으로서 공간이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성 중의 하나는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이주자들의 지역적 분포가 결코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지 선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은 전남, 충북 등의 농촌

지역이 아닌 가장 도시화된 서울과 경기도이다. 흔히 말하는 한국의 인구 분포 패턴과 비슷한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적별로 거주지 분포가 상이한 것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대변한다. 중국 교포 이주 여성들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들은 수도권 남부와 남동 연안 공업 지대에 집중, 필리핀 출신과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띤다. 따라서 농촌 중심의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주민 정책은 반드시 이주자들의 장소-특수적인 분포를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주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의 목적에서도 그 차이가 뚜렷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주자의 수가 월등하게 많을 뿐더러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오며, 이 책에서는 이주목적별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이주연구의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의 체류하는 장, 단기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2009년을 기준으로 5만 명을 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그 현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문직 이주자는 적응 과정에서 주류 사회로 동화되길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전부터 이주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주거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적응 과정과 거주지 선택의 과정은 결혼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접근한 서술 방식은 관련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맞은 이해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스케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다규모적(Muliti-scalar)’ 과정은 국제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글로벌이나 국가 스케일에 경도 되어 있는 것을 뛰어 넘어,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들과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안산시 원곡동이 한국의 최대 외국인 집거지가 된 것은 국제 이주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한 스케일의 조건과 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겪어온 경제 재구조화의 과정, 공업 단지의 발달과 함께 노동자 거주지로 성장하였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개념과 접근방식을 제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갖는 한계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외국인 이주와 관련된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다. 책을 써내려가면서, 학자들 간의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해낸 부분도 있지만 해석의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른 분석에서 계량 분석에 이르기까지 동일 주제에 대한 분석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이 분석 기법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으나, 해석의 일관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 분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 문항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이해가 되나 실제 적용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간 재구성에 외국인 이주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인정의 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책을 기초 자료로 삼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공간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현실 가능한 공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사회에서 소통과 인정의 ‘공간’

현실 속에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서양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동경과 친절의 대상이 되지만,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경계와 위협 혹은 온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곤 한다. 이러한 시선의 차이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배제와 포섭의 담론’이 외국인을 대할 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현실은 이주자의 비극적 말로나 말뿐인 형식적 정책, 외국인이 그저 신기하거나 그들의 상황에 무관심한 내국인들, 외국인 이주자에게는 차단된 의사소통으로 뒤범벅되어 있다. 어쩌면 이 책에서 추구하는 ‘다문화 공간’의 실현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래의 한국사회가 ‘타자’로 간주되는 외국인들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공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적 전환’이 현재의 복잡하고 분화된 세계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외국인 이주 현상의 올바른 대안을 찾아내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공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